무겁게 짐질 필요 없는 인간관계

(시편 55:1~23)

12.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14.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15.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 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16.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무겁게 짐질 필요 없는 인간관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무겁게 짐질 필요 없는 인간관계'
미국의 국부로 불리는 사람 중에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이 있습니다. 그가 독립을 위해서 대규모 투쟁에 임하려는 식민지 주민들의 통합을 구호로 만들어 외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뭉치면 서고 나눠지면 넘어진다(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라고 직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호를 이승만 대통령이 좌우로 분열되었던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구호를 상징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만화 한 컷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더 간단하게 "연합하지 않으면 죽는다(Join, or Die)."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1754년 당시에 프랭클린이 직접 운영했던 펜실베이니아 가제트 신문사의 5월 9일자에 이 그림이 실렸습니다. 대영제국을 향한 독립전쟁에 식민지 주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이 그림의 내용이 뱀입니다. 여러 토막이 나 있는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토막마다 식민지 주들의 이름이 약자로 쓰여 있었는데 합치면 한 마리의 뱀이 됩니다. 청교도에서 시작한 이들이 대영제국에 대항하여 미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로의 탄생을 위해서는 전쟁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의도치 않았던 또 하나의 상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돈독한 유대감을 가지고 뭉치면 지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어버린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흩어져서 망하는 만큼이나 뭉쳐서도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야합할 때에 하나님과의 연합은 끝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지 않았다면 사탄이 아무리 하와를 유혹했을지라도 타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치고 아담과 하와가 야합을 하면서 사탄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 전체의 최초이자 마지막의 일치단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치단결했기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에서 예를 들면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 통합되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분열되었더라면 2차 대전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동서독으로 분리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경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은 일치단결로 인한 폐단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모든 국민과 지식인들이 일치단결했습니다. 고백교회의 외로운 싸움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단합의 추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으로 동서독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뭉침과는 대조적으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경우가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마음으로부터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 흩어진 부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겁게 짐질 필요 없는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삶을 무겁게 합니다. 부모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학교에서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라서는 또한 인간관계를 통해 가정을 갖고 부양의 짐 지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무거운 인간관계의 짐을 내가 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짐'이란 인간관계의 짐입니다. 내가 인간관계에 대해 책임지고 성실하게 이끌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관계들에 대해서 하루살이 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부부관계도 하루살이 부부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얼굴을 대면할 때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생각하고 대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 돌리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냅니다. 부부관계의 돈독한 유대와 지속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뿐, 배우자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생겨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힘든 책임의식을 가지고 결혼하기 때문에 이혼이 많고 부부간의 갈등은 늘어만 갑니다. 본래 인간은 어떠한 인간관계에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뜻 안에서만 그 돈독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뿐, 인간의 책임감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엇갈립니다.
대부분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칼뱅은 사울에게 쫓기던 도망자 시절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시의 내용은 다윗이 배반당한 입장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는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저주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립니다. 우리가 2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마칩니다.
그러면 이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일까요?
압살롬의 반역사건에 관련된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보통 신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이었고 가장 자랑스러웠던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지독하게 슬퍼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암논이 이복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하자 오라비 압살롬은 앙심을 품고 있다가 분노해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장자를 잃었음에도 이후에 압살롬의 죽음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슬퍼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범하는 패륜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압살롬이 죽자 그렇게 슬퍼하였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큰 배신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한편 칼뱅의 의견을 따라서 본문의 배경을 도망자 시절이라고 이해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자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이스라엘의 구원 영웅으로 추앙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합니다. 당시 사울 왕국의 수도인 기브아에 있는 궁궐을 중심으로 한 유력자들과 친분을 쌓아야만 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일개 목동에서 왕의 사위가 된 다윗은 이 모든 인관관계를 받아들이고 돈독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유대관계는 깨어지고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조차도 끊임없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등 돌림을 당하고 배척받게 됩니다. 한 때는 자신을 칭송하고 받들던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아픔과 괴로움에 더불어 분노가 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에 대해 저주까지 하다가 16절부터 전환점을 이루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결국 그 짐을 벗어버리겠다는 다짐을 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보다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질문을 해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든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든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계속해서 돈

독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된 자이고 압살롬은 형을 살해하고 아버지에 대항하여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할 수 있을 만큼 포학한 자이고 패륜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의 관계가 돈독했다고 해서 더 나은 상황이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보자면 관계유지보다도 배신당함이 더 나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비록 상대가 압살롬일지라도, 하나님을 등진 자와 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되는 것은 배신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배신한 모든 사람들과 애초에 돈독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사람의 마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행사에 서로 참여하고 오고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를 염두에 둘 때에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과의 인관관계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배신당했다고 여기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그들에게 마음의 통로를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곧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왕이 된다 한들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온전한 통치가 나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배신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배신당하니 당장은 기분이 나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분노가 생기고 저주의 마음까지 생겨납니다. 그러나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인간관계라는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해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해를 보았다는 의식이 없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관관계에서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거나 피해의식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요셉이 겪었던 배신감은 다윗보다 몇 배나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저주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배신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인간관계에 마음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윗은 이 배신감을 극복함으로서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유대관계를 거두면서 살아 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과 인간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구상하시지 않으

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가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반복해서 예를 듭니다마는 바퀴살이나 우산살과 같습니다. 우산이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산살이 서로 붙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우산대와 연결되어서 펴져야만 합니다. 바퀴가 온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바퀴살이 서로 붙어서는 안 됩니다. 바퀴살은 각자 떨어져서 축에 연결될 때에 바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만을 향할 때에 서로에게서 충만해진 하나님의 뜻과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부부관계를 붙잡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녀를 부부로서 붙잡으시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관계는 온전해질 뿐, 직원이 사장을 존경하고 사장이 직원을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배신의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다윗도 인간이기에 배신당하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을 추스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간관계의 짐 자체를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22절에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의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하루살이의 인간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마주 보는 순간에는 부부지만 돌아서면 서로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가 부부로 묶여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는 하루살이를 넘어 순간살이면 충분합니다.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관계여야 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관계의 계속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붙들리고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 때에 누군가의 배신을 경험할지라도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나와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배신하고 떠나간 것뿐입니다. 그런 인연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정말로 못 살겠다면 그냥 깨끗하게 보내주면 될 뿐입니다. 내가 붙든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닙니다.

목회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교인들이 떠나갈까 안타까워서 전화하고 심방하고 타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교회에 참여하도록 정해놓으신 교인이라면 발로 차도 안 떠납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게 맡겨진 양이 아니라면 별의별 수를 다 써도 그 교인은 떠나고야 맙니다.

이렇듯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면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주님께서 몸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서 가르쳐주셨고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관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뜻합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루살이 관계로 순간살이 관계로 표현 될 것입니다. 그 표현은 띄엄띄엄 될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아내와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부관계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 보듯이 왕의 권력으로 아내를 빼앗으려 할지라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자식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인간관계가 확정되고 유지되어야지, 서로 좋아서 뭉쳐봤자 배신하고 배반당할 뿐입니다. 인간관계 일체에 대한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윗은 이 배신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를 배신한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라면 응분의 징계를 받을 것이기에 배신감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리고 살자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쏟아 부었던 모든 마음과 씀씀이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전력투구하신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하늘 기운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없는 관계라면 그가 나를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조금의 상실감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배신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마리 비둘기처럼 훨훨 나는 자유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